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2)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①

嗚呼 學不可須臾怠 道不可須臾離
오호 학불가수유태 도불가수유리
道由學而明 學可忘乎
도유학이명 학가태호
聖賢之域 由道而至 道可離乎
성현지역 유도이지 도가리호
肆凡民之學 不怠 可以至於賢
사범민지학 불태 가이지어현
賢人之學 不怠 可以至於聖
현인지학 불태 가이지어성

혹 문성인학야 알시하언어 시하언어
凡民與賢 猶知學 聖人 怠於學耶
범민어현 유지학 기성인 태어학야
夫天之剛也 而能學於地故 不枉四時焉
부천지강야 이능학유어지고 불간사시인
地之柔也 而能學於天故 能出金石焉
지지유야 이능학강어천고 능출금석인
陽之發生也 而亦學精於陰故 靡草死焉
양지발생야 이역학속살어음고 미초사인
陰之肅殺也 而亦學發生於陽故 齊麥生焉
음지속살야 이역학발생어양고 제맥생인

혹 문기를 '성인도 배움니까?' 하니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며 이 무슨 말인가?'
법인과 현인도 오히려 배움을 알거든 어찌
성인이 배움에 게으리리오.
대저 하늘은 강하되 부드러운을 땅에서 능히
배우는 고로 사시사철을 간여치지 않고(법하지
않고)
땅은 부드러운 하늘에서 강함을 배우는 고로
능히 금석을 내며, 양의 기운은 남는 것이로되
또한 음의 기운에서 속살(싸늘한 기운이 초목
을 말라 죽게 함)을 배우는 고로 미초(가지와
잎이 미세한 풀)가 죽으며, 음은 속살이로되
또한 양에서 남는 기운을 배우는 고로 밭이·
보리가 자란다'고 하였다.

夫為天乎地乎乎乎乎乎
부위천호지호양호음호

오호라(슬프도다) 배움은 잠시라도 게을리 해
서는 안되며 도는 잠시라도 여의어서는 안된다.
도는 배움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이니 배
우기를 어찌 게을리 하리오
성현의 영역에는 도로 말리암아 다다를 것이
니 도를 어찌 여윌수 있으랴
그러므로 법인의 배움이 게으르지 않으면 가
히 현인에 이를 수 있고
현인의 배움이 게으르지 않으면 가히 성인의
영역에 이를 수 있다.

再求之學 可以至於賢
영구지학 가이지어안연
而不遺具體者 中心息耳
이불재구제자 중심태이
故 曰非不悅子之道 力不足也
고 알비불열자지도 역부족야
子曰德力不足者 中道廢 今汝 勸

도는 배움으로 밝아지니 어찌 게을리하리
천지음양 서로 배움에 만물이 성숙하게 돼

자왈한력부족자 중도폐 금어 획

영구(공자의 10대 제자 중 일인)의 배움이
안연(공자의 수제자)에 이룬만 했으나
온전함에 미치지 못한 것은 중심이 게을렀을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있음) 뿐이었다.
고로 이르되, '공자의 도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건만 노력이 부족하다' 하였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노력이 부족함을 근심
하는 이는 중도에 폐하나니 이제 너는 획을 그
었구나(자신을 잃고 스스로 한정함)' 하였다.

交相學而不怠
교상학이불태
所以成萬物
소이성만물
天不學則無以覆
천불학유즉무이복
地不學則無以載
지불학유즉무이재
陽不學則無以啓
양불학유즉무이개
陰不學則無以閉
음불학유즉무이폐
聖人無他야
성인무타야
則天地絪縕而行者
즉천지음양이행자
四者學不怠聖人惡乎怠
사자학부지성인어호태
사자학부지성인어호태

대저 하늘과 땅과 양과 음이여, 서로가 서로
에서 배움에 게을리 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에 만물은 성숙하는 것이다.
하늘이(땅이) 부드러운을 배우지 않았으면 만
물을 덮어줄 수 없었고, 땅이(하늘의) 강함을
배우지 않았으면 만물을 살아줄 수 없었을 것이
다.
양이 음을 배우지 않았으면 봄·여름이 열리
지 않았을 것이며, 음이 양을 배우지 않았으면
(가을·겨울로) 닫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인도 다르지 않나니 곧 천지음양의 법을
따르는 자라 이 네가지를 배움에 게을리 하지
않으니 어찌 성인이 태만하랴. 龍眼

願聞之學 可以至於夫子
안연지학 가이지어부자
而不怠於聖師者 短命死耳
이부제어성사자 단명사이
如不死 安知其不知仲尼
여불사 안지기부지중니
以其學之不怠也 故 曰有願氏子 好學
이기학부지태야 고 율유안씨자 호학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불행단명사자 죽어죽망

안연의 학문이 가히 공자에 이르렀거늘
성사(공자)와 같아지지 못한 것은 명이 짧아
일찍 죽은 탓이라
죽지 아니했으면 어찌 그가 공자만 같지 못할
줄 알았으리오 그의 배움이 게으르지 않았음이
라 고로 이르되, '안연이 학문을 좋아했으나 불
행히 명이 짧아 죽으니 이제는 없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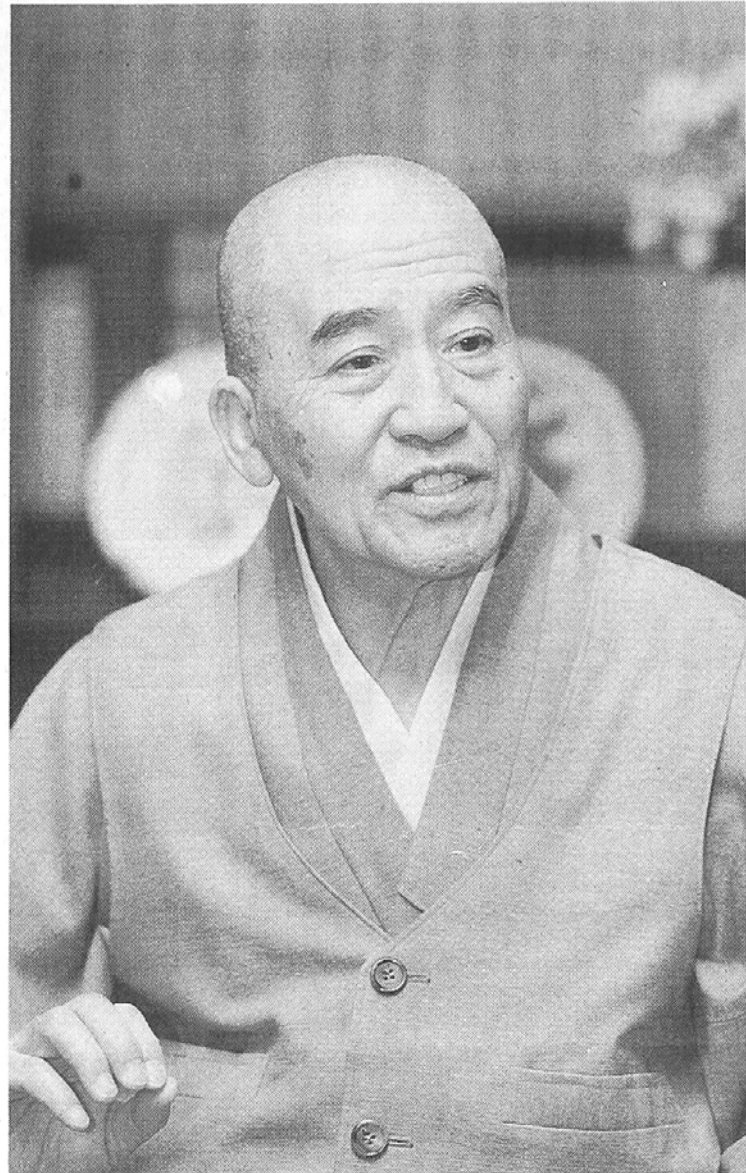
或 問聖人學耶 曰是問可歎 是問可歎

“법이란 자기가 얻는 것이지

지 상 범 석

사람들은 나를 초빙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합니다. 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말씀 드릴 것이 무엇 있었습니까. 지금
산천에 피어 있는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법을 설하고 있
습니다. 온 우주에 법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새삼 자에게 말해 달라는 것이
지요. 지금 제가 몹시 목이 마른데 이
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틀에 모든
것을 주워 담으려 합니다. 행위자와 모
든 것을 주워진 틀 안에서 판단하지요.
저의 설법 또한 여러분의 범주로 난
도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 지적 허욕을 채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법이란 여러분의 잣대로 해
어려서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틀과
잡질을 벗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흩날리는 낙
화(落花) 속에서 법의 진면목을 볼 것
입니다. 그것을 이룰도 형상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을 법
이라 하면 참된 법이 아니지요.
저의 설법은 이렇게 신중치 않습니
다. 그렇지만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는



범행스님
(팔달선원 주지)

약 력

- 1921. 2. 21 경기 화성 생
48년 금산 태고 사에서 포산스님 은사로 출가
52년 팔달선원 원장
59~60년, 64년, 74~90년 선학원 원장
조계사 동화사, 불국사, 봉은사 주지 역임

‘나’는 본래
온데도 간데도 없고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존재일 뿐

법석(法席)을 보고 있노라니 환희심에
충만하여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알
겠습니다.
(주장자를 세번 내리치고)
이미 법은 마쳤다고 봅니다.
본래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법을
설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입
을 열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명상
(名相)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이야기 하나 이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가 있고 ‘내’가 있
고 부처님도 있고 삼라만상도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반문 하겠지요.
여러분이 늘상 외우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는 것이 있
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
고 또 눈 귀 코 입 촉각을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도 해요. 그렇지만 덮어놓고
없다고 하면 가시적인 우리 눈앞의 현
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세주
의사 내지 정신이상자로 취급받기 쉽
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불생불멸’에 대해

논리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 생각합니
까. 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현미경으
로 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공자벌
레같은 정자를 보냅니다. 그것도 한마
리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자랍니다. 그런
데 인간은 잡식동물 아닙니까. 인먹는
것이 없어요. 날아가는 것, 기어다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할것없이 다 먹어
요. 이렇게 먹고 자란 것이 ‘나’입니
다. 그런데 나는 지수화풍 4대로 구성
된 존재입니다. 이 4대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본래 온데도 간데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데도 없고 간데도 없으니 부처님은 ‘불
생불멸’이라 했던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눈 귀 코 입 촉
각 생각도 모두 절대성이 없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수박을 자주
먹게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박을 먹
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수박 맛을 설명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수박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누구나 수박을 잘 먹은 것
처럼 얘기하겠지요. “겉은 파랗고 속은
붉은 것이 여름에 벌어입니다.” “차갑
게 해서 먹으면 더욱 맛이 납니다.” 등
등 여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만 사실은 잘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수박맛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부처님이라면 수박을 어떻게 설명하겠
을까요. 부처님은 수박씨를 심어서 가
꾸어서 익은 것까지 모두 알려주고 열
마만큼 익으면 이것을 따 먹으라 하겠
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보니 어떠하더냐.”
“참 수박이 맛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그렇다. 먹어보니
나도 그렇다.”
수박을 못먹어 본 사람에게 당분이
어떻고 수분이 얼마나 있으며 영양가
가 얼마나 있는가고 아무리 설명해도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02-737-8881
F.02-737-0697
부산지사
T.051-634-5114
F.051-634-5188
광주지사
T.062-375-9986
F.062-371-7544
대구지사
T.053-427-8008
목포보급소
T.0631-281-2534
공주보급소
T.0416-856-3280
2천만에 깨달음을

공 고
안양 불암사 황옥순 귀하
소재 및 사명: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산 186-7 불암사
창 건 주: 정순조(치봉)
위 사원은 고 정치봉 스님께서 창건하셨습니다. 주지소임이
셨고 본중에 등록, 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셨던 스님이 원장직
을 수행한 사실은 불교 각 종단 및 지역 각 사원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님 작고 후 시봉보살 황옥순이 위
사원의 후속조치인 주지임명에 본종과 상의조차 없이 스스로
창건 및 주지임을 내세워 타종단에 등록된 것과 관련, 창건 주
지 스님의 업적을 유지·계승하려는 신도회와의 사이에서 법
적 관계 등 불미스러운 문제가 계속되어지기에 그 귀추를 보
아오던 중, 4월 19일자 공고를 접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 생각
되어 이후로부터 황옥순 씨는 신도회와의 사이에서 야기된 법
원의 조정판결에 순응하고 지역 및 양 종단의 화해 및 이기적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기획조정실장 이 무 명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
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
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성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삼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움을 약용하여 묵
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려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
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
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 (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당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살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 ~ 2, 235-1846 ~ 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든 未耨(아름답살이 되는 해에 배우는 진체)이다.

화제의 신간
창작에언소설
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와 인류에게 대위기가 발생,
그때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은
숨어서 침묵하던 도인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현인들은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 인류의 대위기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지극히 합리적인
자이완성의 수행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옛부터 비밀리 전해지던 금단의 비결이
드디어 공개되는데.....
김인하 지음/값 6,000원
범보시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 금강경(심재열/값 2,000원)
2. 원문금강만버리밀경(심재열/값 2,000원)
3. 우리말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4. 원문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5. 우리말천지팔만신주경(이청범/값 2,000원)
6. 원문불설천지팔만신주경(이청범/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칭문(심재열/값 2,000원)
8. 지정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왕경(경홍/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범보시용은 특별 할인에 드립니다.
관음출판사
전화/921-8434
팩스/929-3470